

우리 가족의 첫 번째 그림책

만복이

엄마 아빠에게 온, 40주의 이야기

MANBOK!



TO. 만복이

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

만복아, 안녕.

참깨보다 작은 네가

오늘도 콩닥콩닥,

심장 소리를 냈대.

얼굴도 모르는 너를

우리는 벌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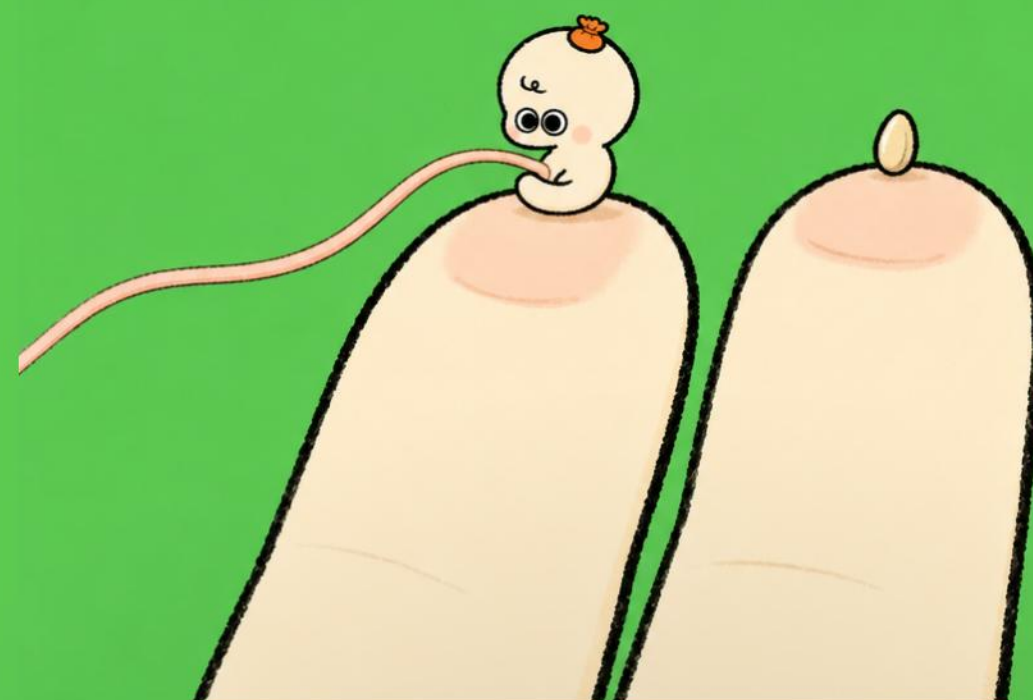
이렇게 기다리고 있어.



5주

참깨만해요

2 mm · 1g 미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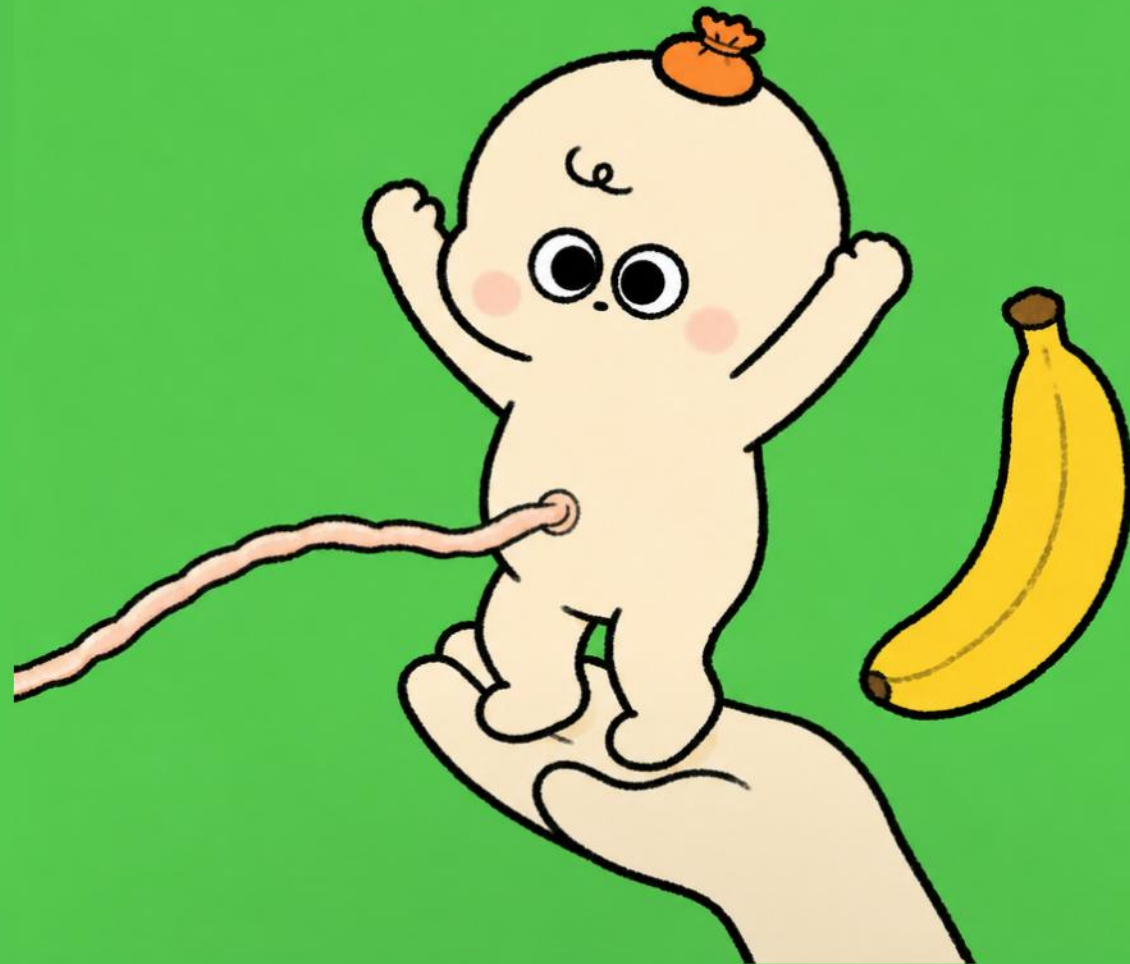
첫 만남

아주 작은, 아주 확실한 시작

20주

바나나만 해요

25cm · 300g



절반을 지났어

두 팔 벌려 만세하는 우리 여행자

PAGE 2 · 절반을 지났어

어느새 바나나만큼

자랐다는 소식.

두 팔을 번쩍 든 네 모습을

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.

매주 너는 자라고,

매주 우리는

부모가 되어가.



이제 수박만큼

자랐대.

손 위가 아니라

팔 안에서 너를

안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.

그날까지, 매일 안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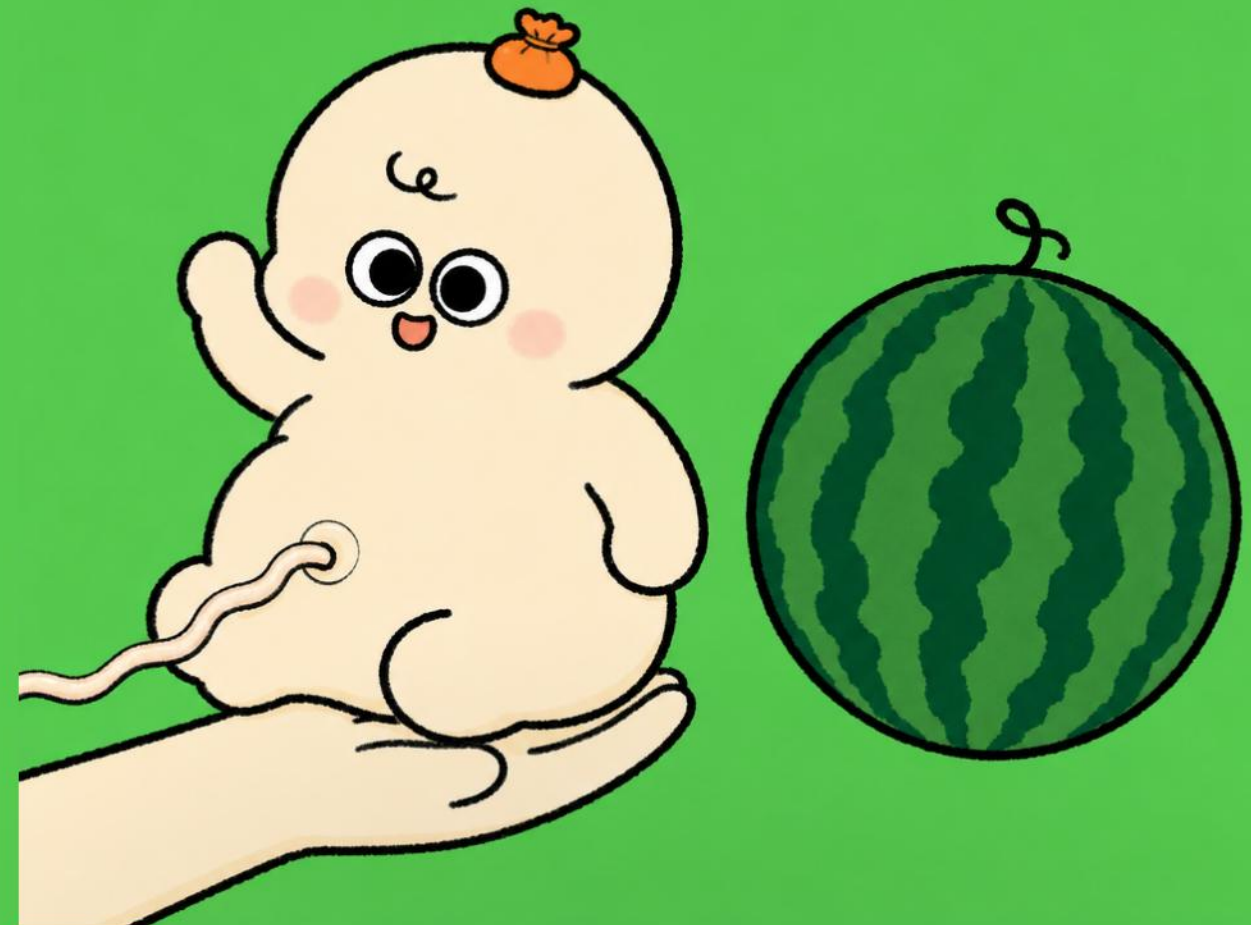
— 엄마 아빠가



40주

수박만큼 무거워요

51cm · 3.4kg



곧 만나

활짝 웃으며 건네는 첫 인사